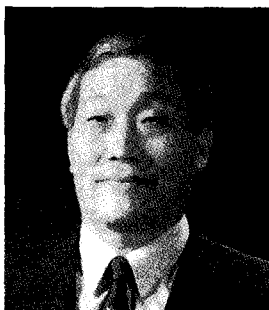


# 모조분유 수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강 춘 성**

본회 이사, 경남낙농축협조합장

## 1. 낙농의 어려움 고조

낙농역사상 유례없는 분유체화로 우리 낙농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칫하면 낙농기반 자체가 붕괴될 조짐마저 내비치고 있어 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종전의 낙농불황이 소비둔화로 생겨나거나 생산량과 소비량과의 격차에서 생겨난 문제였다 하여도 일정기간 후에는 해소기미가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국내 생산된 원유에 국한하여 소비만 확대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소비 확대방안을 적극 구사하면서 동시에 낙농가의 원유생산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주효하여 거의 단기간내 낙농불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현재의 분유재고 체화현상은 분유 수요업체들이 보다 값싼 외국산 분유류에 의존하면서 국산 분유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분유로 정당하게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제품 형식으로 수입하

여 분유를 이용함으로써 값싸게 외국산 분유를 대체 사용하는 것이다. 「분유」로 수입할 경우 즉 탈지분유나 전지분유를 수입할 경우는 정부가 UR협상에서 관세율을 220%로 상향조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회피하여, 분유가 대부분이면서도 타 식품을 섞어서 들어오는 조제품 즉 모조분유로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이 40%이므로 훨씬 값싸게 식품 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 식품업체들이 값싼 모조분유에 눈독을 들여 수입하면서 국내산 분유는 그대로 창고에 쌓아두어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경우 일차적으로 낙농가의 보호가 목표이므로 분유수입을 추진할리 없고, 식품업체의 경우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값싼 원료를 수입하여 이익을 남기려는데 열중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합에서 생겨나는 분유를 사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유조합보다 유가공장을 보유하면서 제품

##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을 생산하는 조합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니 조합의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조합원인 낙농가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선 원유대를 정상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더욱이 경남남협외의 경우 유통개혁으로 가격인하를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값싸게 우유를 공급하던중 유질 논쟁 파문으로 값싼 우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고 부터는 소비 감소와 함께 재고분유 판로가 막히면서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이면에 낙농가는 신음하고 있고 국내 낙농기반은 붕괴될 조짐이다.

특히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살아남는 길은 전업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이라고 강조되어 왔다. 우리 낙농의 사육기반이 영세하므로 조속히 전업규모로 확대 하자는 것이 슬로건으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우사를 신축하고 착유시설을 새로이 하고 전업규모에 대비한 각종 준비를 거액을 들여 준비해온 낙농가들에게는 실로 큰 충격이자 좌절이 아닐 수 없다. 조합의 분유 재고로 경영압박이 가해지면서 정상적인 원유대 지급이 어렵게 되자 미래를 내다보며 피땀흘려 투자한 낙농인들의 한숨과 울분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규모확대는 커녕 오히려 젖소 도태확대를 통해 원유 생산을 억제하는 감산대책이 자구책으로 제시되는 현실점에서 낙농가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낙농가들 스스로 나서서 우유판매에 동참하는가 하면 재고분유 소진을 위해 국회의원을 찾고, 거래 유업

체를 찾아 하소연점 주장을 펴는 등 백방으로 살길을 찾아 애쓰는 조합원들 앞에서 각오를 다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이러한 어려운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낙농가의 눈물겨운 노력과 조합의 경영개선 나아가 낙농분야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낀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다시말해 값싼 분유류를 수입해 다 이익보는 기업 따로 있고 낙농도산과 포기 손해보는 낙농인이 있는한 한국낙농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분유는 보관을 위해 부득이 만들어졌다지만 보관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유효기간내 판매되지 않으면 재고분유는 모두 버리게 되고, 버린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낙농가의 피해로 직결된다. 재고분유의 보관내 해소 방안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낙농의 어려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 2. 모조분유 등 유제품 수입실태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이로 인해 각종 유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되

구 분	'93	'94	'95	'96·7
자유화품목(개)	12	14	29	37
자유화율(%)	32	38	78	100

### 유제품 수입동향

구 분	'92	'93	'94	'95	'96·7	비고
유제품 수입량	45,478	56,252	76,396	98,793	31,976	
(전년대비)	(△14.7%)	(23.7)	(35.8)	(29.3)	(△15.6)	
원유 환산량(A)	386,563톤	478,142	649,366	839,741	271,796	
국내 원유생산량(B)	1,816,121	1,857,873	1,917,398	1,998,445	898,809	
자급율(B/A+B)	82%	80	75	70	77	

주) ① 수입 유제품은 우유, 분유, 연유, 유장, 버터, 치즈등 낙농품 37개 품목 기준

② 원유환산량: 수입량×8.5

### 모조분유 수입동향

구 분	93(A)	94(B)	95(C)	96.5	증가율	
					C/A	C/B
총유제품수입량(가)	56,252톤	76,369	98,793	31,976	175.5	117.5
모조분유수입량(나)	3,217톤	15,560	28,007	13,359	870.6	180.0
점 유 율 (나/가)	5.7%	20.4	28.3	41.7		

고 있다.

특히 93년말의 UR타결 및 WTO체제 출범으로 수입자유화에 편승하여 낙농선진국과의 가격차이가 심한 유제품의 수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식품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분유류나 원료대신 저렴한 수입 분유류등의 유제품을 들여다 원료로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적신호가 나타났다. 물론 UR협상 당시 낙농의 재협상을 요구 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낙농의 경우 일본의 UR협상 결과를 비교하여 개도국인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최소한 일본

의 정도는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유제품 수입급증으로 국내 우유 자급율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95년도의 경우 약 70%정도 수준이었다.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경우 자급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모조분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모조분유류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유장이외의 기타」(HS0404.90.000)와 「우유함유 조제품」(HS1901.90.2000)이 그것인데 주성분이 분유이다. 특히 「유장이외의 기타」로 들어오는 것은 탈지분유

### 나라별 모조분유 수입동향

(단위: 톤, 천\$)

년도	93		94		95		96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네덜란드	814	2,949	4,847	9,523	11,376	22,638	3,175	8,242
프랑스	1.1	8.1	3,490	6,182	7,665	16,359	2,252	5,482
벨기에			2,276	5,183	2,781	6,187	1,066	2,414
스웨덴	524	1,132	981	1,783	3,029	6,422	997	2,891
호주	0.6	1	1,567	2,924	1,021	2,215	187	447
뉴질랜드	442	735	1,039	3,239	777	2,566	138	460
영국			1,215	2,230	840	1,973	1,760	4,592
아일랜드							20	46
소계 (점유율)	1781.7	4,825.1	15,415	31,064	27,489	58,360	9,595	24,574
기타	1,345.3	2,211.9	146	1,247	518	1,477	705	767
합계	3,127	7,037	15,561	32,851	28,007	59,837	10,300	25,341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산자료(KOTIS)

##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국내 수요중 모조분유 비중의 변화

(단위:톤, 천\$)

구분	93	94	95		96, 1-5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수요 (A)	2,205,063	2,218,548	9.6	2,303,515	3.8	951,679	△1.5
생산	1,857,873	1,917,398	3.2	1,998,445	4.2	898,809	4.4
수입품 수입 (B)	3,217	15,561	384	28,007	80	13,358	35.4
수입품 비중 (B/A)	1.6	7.0	-	12.2	-	14.0	0

자료: 무역위원회

75%에 유장분말 25%를 혼합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잘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다. 이렇게 수입한 모조분유는 국내에서 요구르트나 발효유, 아이스크림등 제과·제빵원료로 사용된다. 값싼 원료를 통해 이익을 남기자는 계산인 것이다.

특히 발효유의 경우 수입 모조분유를 원료로 사용하면 그 원료를 「혼합분유」로 표기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되는 모조분유는 93년 3,217톤에서 95년 28,007톤으로 무려 870%나 증가 함으로써 수입 의존율이 얼마나 커지는지 드러나고 있다.

모조분유는 주로 네델란드,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수입되는데, 96년 1~4개월간 누계량을 보면 이들 국가에서 전체수입량의 약9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 수입품은 외국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회사를 통하여 수출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수요자의 직수입, 수입상을 통한 수입 또는 수입상이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을 통하여 수요자에 판매하는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수입 모조분유의 시장점유율은 93년 1.6%, 94년 7.0% 95년 12.2%, 96년 1-4월간 14.0%로 증가 추세를 있음을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모조분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유제품

의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고, 탈유업화 현상이 가속화됨을 의미한다.

수입 모조분유의 가격은 93년에 Kg당 1,750원, 94년 1,709원 95년 1,790원으로 조사되었고 96년 1-4월의 경우 2,008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비해 국산분유의 판매가격은 93년 5,352원, 94년 5,295원, 95년 5,338원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올들어 국산분유의 정상적 판매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거의 3천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북한 원조용 분유구매 가격이 3,800원이었고, 비공식 거래가 대부분 3천원대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것조차 사가지 않아 내버릴 형편이다. 반면 국산분유의 제조원가는 Kg당 평균 6,172원으로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얼마만한 피해가 심한지의 예가 아닐 수 없다.

### 3. 모조분유 수입의 피해

우유 소비구조의 특성상 비수기에 쌓인 재고분유가 성수기에는 감소해야하나 수입 모조분유로 인해 성수기에도 체화되는 기현상을 배출하고 있다.

1만5천톤의 재고 적체로 각유업체에서는 낙농가를 상대로 경영압박을 사유로 원유증산을 억제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에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은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극도의 불안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합의 경우 원유대

모조분유와 국산분유의 가격비교

(단위: 원/kg, 원, %)

년 도		93	94	95	96, 1-4
수입품	수입가격(CIF)	1,750	1,689	1,709	2,008
	국내판매가격(A)	2,590	2,500	2,530	2,971
국산품	판매가격(B)	5,352	5,295	5,338	4,990
	제조원가	5,157	5,426	5,859	6,172
가격비	A/B	48.4	47.2	47.4	59.2
가격차	B-A	2,762	2,795	2,808	2,019
수입품 국내시장 점유율		1.6	7.0	12.2	14.0

자료: 무역위원회

주: 1. US\$ = 800원 기준

2. 국내판매가격 = 수입가격 + (수입가격 × 제비용 · 이윤(8%))

3. 국산품은 분유기준

4. 수입품 시장점유율 = 수입량 / 국내수요

5. 판매가격은 축협외의 평균판매가격

6. 제조원가는 축협외의 평균제조원가

일부지불 및 지불기한의 지연, 분유등 유제품으로 원유대를 지불하는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것이다.

특히 사유업에 납유하는 낙농가들의 경우 체세포수 기준강화, 세군수 기준강화등 제도의 강화도 우유가 남고 재고가 적체된 시점에서 유업체의 원유검사 불신을 호소하는 소리도 높게되었다.

집유조합이나 제품생산 조합이나 사유업체에 원유를 판매하던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후 재계약을 기피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재고 증가가 많아지게 되었다.

실제 집유 실적을 보면 96년 상반기를 전년동기 대비 협동조합은 8.6% 증가한반면 사유업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낙농가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첫째 수입 모조분유 증가로 인해 국내 원유 생산을 억제시켜,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열심히 땀흘려도 어려운 판에 생산억제등 기반 약화는 참으로 위험한 내부혼란이 아닐수 없다.

둘째로 모조분유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 분유의 사용기반을 상실시켰다. 국산분유는 창고마다 쌓여

기반자체의 유지가 어려워 아우성인 터에 모조분유 수입을 급증하고 있어, 분유생산자체가 곧 피해와 직결되고 있다. kg당 6천원대의 분유제조원가가 3천원대에서 판매되거나 그것도 아예 수요자체가 없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 우유소비구조의 특징인 계절적인 비수기 및 토.일요일의 주간 비수기에는 부득이 분유료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유 자체의 판로가 없어져 버렸으니 생산비는 커녕 도산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96년 5월말 현재 전국 분유재고는 15,721톤(축협조사)으로 94년보다 10.1배, 95년말보다 4.1배 증가함으로써 어려움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재고량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976억원에 달한다

일반 유업체의 경우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어 가공 유제품생산분유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체소진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시유위주 생산에 치중 하므로 조합의 재고 처분이 특히 문제되고 있다.

셋째, 잉여원유의 분유 임가공 비용 및 보관에 따는 비용부담도 과중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14개 조

##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 분유재고 동향

구분	'94(A)	'95(B)	'96.5(C)	증 감	
				C/A	C/B
분유재고량 (축협)	1,517톤 (92)	6,565 (1,119)	15,271 (4,532)	1,006.7% (4,926.1)	232.6% (405.0)
평가액	8,550백만원 (511)	41,990 (7,153)	97,601 (27,700)	1,141.5 (5,420.7)	232.6 (387.3)

자료: 축협중앙회

주) ① 평가액은 전지분유 '94년 5,100, '95.'96년 6,000원/Kg, 탈지분유 '94년 5,700, '95.'96년 6,500원/Kg

② ( ) 내서는 축협의 분유재고 현황임

합에서 유유가공사업을 실시하나 서울유유와 부산유유를 제외한 12개조합은 분유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분유가공 시설이 있는 조합의 경우도 가공보관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있다. 저장창고 보유의 문제, 창고 임대료 임가공료등 보관 그 자체가 경영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국내 유제품중에서 수입대체가 늘어나게 되었고, 늘어난 만큼의 낙농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유제품중 가장 가능성있는 개발대상이 치즈라고 제시된 바 있다. 치즈의 경우 전체 소비량에서 약 7~8%를 차지하는데 거의 수입치즈로 대체되고 있다.

발효유가 인기가 있고 시장확대가 되어 가능성있는 품목으로 두각을 나타내지만 이것 역시 수입모조분유로 대체되고 있다. 발효유는 전체 유제품중 7~8%를 점하고 있다. 가공음용유의 경우 약 13~15%를 전체에서 차지하는데,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모조분유로 대체되고 있다. 수입모조분유에 의한 제품 생산에 치중하다보니 백색시유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감소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수입대체

는 물론 피해로 연결되지만 정상적인 수요확대분의 손실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다고 본다. 제과 제빵등 식품업체에서 국산분유외면에 따른 유유시장의 축소 역시 피해를 계속할 수 있다면 엄청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분유재고 체화로 따른 낙농불황분위기에 따라 낙농가의 위축과 전업화에 커다란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의 짧은 낙농역사속에서 선진낙농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확보이고 이를위한 전업규모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낙농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생산제한이 해지자 전업화에 역행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조합경영이 어렵게 되고 정상적인 원유대 지급이 어렵자 젖소도태를 택할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인한 낙농가의 소득상실과 소값하락에 따른 재산 감소는 엄청나다. 부득이 젖소도태 확대로 경산우 도축이 늘면서 소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여섯째, 모조분유수입으로 인해 낙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있다. 식품업체들의 제품생산 원가는 국산분유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수입원료

### 조합의 임가공에 따라 추가부담

총분유재고량			임가공량			임가공비용		
전지	탈지	계	전지	탈지	계	전지	탈지	계
1,256톤	3,276톤	4,582톤	1,056톤	2,476톤	3,532톤	739백만원	1,733	2,472

자료: 축협중앙회

주) ① 임가공비용 kg 700원

② 임가공량은 적정재고량 1,000톤(전지200, 탈지800)을 제외한 양임)



를 사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

수입원료를 사용한다하여 소비자가격을 낮춘것이 아니므로 값싼 수입 모조분유로 인해 영리를 취하고 있다. 분유수입에 따는 피해가 심각하다 하여 정부가 관세를 고율로 높이자 모조분유수입의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 유업체의 창고는 재고분유가 쌓여 아우성인 반면에 모조분유 수입으로 재미를 보는 기업이 따로 있다는데 대해 소비자들은 속고 있다고 하여 불매운동등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내우유소비전반에 미치는 우려 때문에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식품업체들의 국산 분유기피로 탈유업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낙농업의 활로 개척을 위한 유제품이나 식품의 개발보다는 값싼 수입 모조분유 사용을 극대화하려는데 집중함으로써 낙농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 4. 대책방안

식품업체들의 수입 모조분유 사용 급증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수입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UR협상으로 분유는 관세를 220%로 높였기 때문에 마치 수입의 위험을 차단시킨양 하였지만 식품업체들은 모조분유 수입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UR협상 결과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협상 내용을 수정토록 요청한것이 바로 오늘의 결과를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낙농 선진국인 일본은 모조분

유의 경우 관세 35%에다 부과금(mark-up)을 최고 1363엔 까지 부담케하고 있다. 관세에다 부과금을 더 할 경우 모조분유 수입가격이 국내 제품가보다 높게 되어 수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모조분유 뿐만 아니라 42개 유제품 모두에 적정 부과금 부과 및 할당량 설정으로 2천년도 까지는 전혀 문제 없도록 하고 있음은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더이상 피해가 가중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이 나라 낙농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 반드시 수입 억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 신청이 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무역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수입 업체들은 여러 변명을 제시하지만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필요한 조치로는 이미 제시된대로 모조분유의 관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 현행분유의 관세율은 211.2%처럼 상향조정 함으로써 수입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입수량을 제한 하거나 품목을 재분류하여 식품업체들의 수입을 최소화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 반드시 정부의 정책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㉞

●필자연락처(0591)747-7800